건설인은창조자인가

환경보호론자들은우리건설인들을자연훼손자로인식하고있다.
건설인들이환경친화적건설을 위해기울이는노력은경시한채개발행위 자체만 집요하게 물고늘어진다.
시대적조류가개발보다는환경을좇기에 건설인들의 항변은 공허하게 묻히고 만다.
건설기업, 건설인에대한세간의평가는 더욱차가워지고있다.
현장 건설인들의 사기와 긍지가떨어지는것은불문가지이다.

한중환
대림산업차장

대학을 졸업하고 건설회사에 입사하여 지난 17여 년 동안 국내의 여러 토목 현장에서 일해 왔다. 현장 생활을 시작할 당시에는 직장 동료들과 고민하고 노력하면설계조건대로우수한품질의구조물을만들어많은사람들이편리한삶을영위하게될것으로생각하였다.

하지만직접겪어본현실은생각과크게달랐다. 현장에서공사를성공적으로수행하기위해서는부딪쳐야할문제점이 무수히 상존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특히, 공사 기간 중에 부딪히는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자연환경훼손에따른반대여론과지역주민들의민원은솔직히힘에겨웠다.

환경보호론자들은 우리 건설인들을 자연 훼손자로 인식하고 있다. 건설인들이환경친화적건설을위해기울이는노력은경시한채개발행위자체만집요하게물고늘어진다. 시대적조류가개발보다는환경을좇기에건설인들의항변은공허하게묻히고만다. 건설기업, 건설인에대한세간의평가는더욱차가워지고있다. 현장건설인들의사기와긍지가떨어지는것은불문가지이다.

이런것을 보면서필자는‘ 아이들 눈에아빠의모습은어떻게 비쳐지고 있을까? ’ 하는 생각을 가끔 해본다. 그리고는 내가 해왔던 일,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과연 그렇게 부정적이며, 아이들에게조차 어떻게보일지 우려해야하는지반문해본다. 그런데아무리생각해봐도억울한점이많다.

필자는국토개발과산업발전의토대가되는기반시설을만드는일이 거창한 업무라고 여기지는 않는다. 그러나, 산을깎고 바다를 메워 공단과 택지를 만들고, 부두를 만들고, 강을 가로질러 다리를 놓고, 계곡을막아댐을만들고하는일들이자연환경을부분적으로훼손해서새로운인공구조물을만들어편리를제공함으로써 사회 발전을 이루어 나간다고 생각한다. 그러자니 어쩔수없이자연을훼손할수밖에없다.

사람들은 흔히 고대 이집트의 피라미드와 스핑크스, 중국의만리장성, 우리나라의불국사 · 첨성대등인류가 남긴 숱한 거대한 유물들을 보면서 그 웅장함과 아름다움에감탄한다. 더욱이그 옛날장비도부족하던시대에 그렇게거대한구조물을만들어낸사람들의창조정신에 찬사를쏟아낸다.

반면, 지금건설하고있는시설물들을이시대의상징적산물로이해하고, 건설문화라고인식하는사람들은얼마나있을까? 과거조상들이만들어낸유적과유물들은아름답고위대한업적의예술품이고, 지금의건설인들이만든것은자연을훼손하고사람들의편익만을제공하는인공물로여겨지는것이매우아쉽다. 물론 필자는지금하고있는일이새로운문명과문화를만들어내고사회발전의 원동력을 제공한다는 생각으로 내가 참여한 공사를 보면서 가슴뿌듯함과창조의기쁨을느낀다.

오늘날건설산업은쇠퇴기에있는사양산업, 사회적인지도가낮은기피산업, 3D 직종으로불리고있다. 이처럼부정적인식이팽배해지고, 사회적 위상도하락하면서건설업을 직업으로두려는사람들도줄어들고있다.

하지만건설업에종사하는사람으로서, 세상이존재하는한반드시건설은필요하며인간의생존과함께하는직업이라고여기고있다. 앞으로창조적인발상으로문화적가치를지닌건설이되도록우리건설인들이함께노력하며나아가야할것이다. 오늘건설인들이 현장에서흘린땀방울들이그작은씨앗이되기를기대해본다.